

8기 전여대협 1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 2002년 2월 3일

장소 : 00대학교

508055

0590
53055
290

"넌 지금 출근준비 하니? 난 이제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해"
 어제 야가씨 1명이 갔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가는 것에 서운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언제 나도 같지 모른다는 두려움.
 솔직히 겁이 난다.
 난 여기서 뱃 다 까고(깎고)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
 어쩔 또다시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한다..
 슬픈 일이다. 정말 슬프다.
 돈! 돈이 뭔지? 그리고... 인생이 뭔지?
 왜 꼭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생각들을 해 본다.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 사망자 임양의 일기 중에서-

안건

- ▶ 대학 상황총화
- ▶ 2월 지침 발제 및 토론
- ▶ 8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선출
- ▶ 8기 전여대협 총회 공고
- ▶ 임시체계 특별분담금
- ▶ 기타

영남대 - 새터, 봉래교.
 전남대 - 7일하늘 ^{22차} 새터.. 준비.
 동아대 - 정연, 사연, 가재.
 3기 새터.
 동원대. 해방. ②
 ny - 대학 간담회... 기동 허영
 22차 새터
 16일까지 총회 ~~총회~~ 수개 지한다
 5- 새터... 하...
 22차 새터.
 JJ - JJ, 새터, 이그루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임시의장을 결의합니다.

민족해방, 여성해방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강단지게 투쟁하여 전여대협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갑시다!!!

전여대협이 걸어온지도 어언 13년이라는 역사가 되어갑니다. 언제나 여성민중의 요구에 맞게 투쟁해온 그 자랑찬 역사를 긍지롭게 돌아보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여성을 억압해온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미국의 식민지 지배... 격동의 2002년! 전여대협은 어떻게 투쟁해야할것인가?

외세의 온갖 간섭속에 짓눌려있는 분단된 조국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남사회의 민중들을 볼 때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청년이라면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뜨겁고 가슴 벅찬 감격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민족의 하나됨을 갈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감격을 지닌 채 이 땅을 살고있는 청년이라면 이남 분단의 근본원인인 미제와 반통일 세력들을 몰아내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 언제나 선두에 서야할 것입니다.

저는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하나이어야 할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두 동강이 난 채 온갖 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남사회의 한 여성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이남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했던 주한미군들이 한반도를 뚫으면서 처음 찾았던것이 술과 여자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버젓이 내국인 출입금지 업소를 만들어 놓고 저질 퇴폐적인 제국주의 성문화를 유포시키고 이러한 퇴폐향락적인 성문화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남사회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미제에 의해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여성민중들을 안타깝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제가 이남을 살아가는 여성민중들에게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으로 들어온 IMF신탁통치는 여성민중들의 삶을 더욱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IMF이후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성노동자라는 이름은 정리하고 0순위, 비정규직 우선순위라는 불합리함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식 가르치려고 자본으로 인한 억압과 멸시를 꾀갓하게 참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더 주름살만 늘어가는 내 어머니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수 만은 없습니다. 내 어머니, 여성노동자들을 억압과 멸시의 굴레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단순히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로만 규정짓고 경제불황시 충격흡수층이 되게 만드는 사회의 제 모순들과 싸워야 합니다.

저의 할머니는 철저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농촌에서 뼈빠지게 일하고도 봉건의식의 잔재인 가부장제라는 굴레속에서 영농보조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단 내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여성농민들의 공통된 삶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입개방은 우리 농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봉건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할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분단된 이땅을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할머니들은 십년이 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들은 너무 늙어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해결이 이 할머니들의 몫입니까? 일제가 만들어낸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인 위안부제도입니다. 이렇게 민족적 차원인 동시에 여성을 남성의 성적 노리개로 만들었던 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만들지 맙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함께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저는 이남사회를 살아가는 여대생입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등록금인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여대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기도 모자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 부어야 하거나 좀더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유흥업소나 윤락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4학년 여대생들은 취업문제로 고민하다가 종래에는 결혼으로 또는 적당한 비정규직 직장으로 가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남사회를 사는 한 여성으로서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억압과 착취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여성들을 안타까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당당한 세상의 절반으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하는 사회의 제 모순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외로운 투쟁을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전국 50만 여대생,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여대협은 건준위 6년 전여대협 7년, 13년의 역사속에서 이남사회 수많은 여성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강단지게 투쟁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감격스런 순간이후로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고 여성해방을 안아오기 위해 줄기찬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여성들이 겪게 되는 2중 3중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것입니다.

투쟁합시다!

전여대협 50만이 선두에서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인 미제놈들을 몰아내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해 냅시다. 전여대협 옹골찬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8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해서 사회 제모순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학생운동대중화를 꼭 이루어 냅시다. 참으로 어려운 여학생운동입니다. 어렵고 험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학생운동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몇 안되는 일꾼들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여학생운동입니다.

힘냅시다!

어느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살아왔던 전여대협 일꾼들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역사의 성과들을 잘 이어내고 민족해방, 여성해방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더욱 강단지게 투쟁합시다. 그것이 전여대협 일꾼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한 전여대협 50만 여학도들과 함께 8기 전여대협 임시의장으로서 최선봉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8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결의자
민족영남대 총여학생회장 장혜경**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공고

8기 전여대협 1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규약에 따라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 1절 대표자 총회

제 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 11조 (구성)

-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대표자 및 부대표자), 각 지역의장, 지역여대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특별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로 구성한다.
-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 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제, 개정, 규약의 제,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13조 (정기 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총회)

-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2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는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일시 : 2002년 2월 23일~24일

장소 : 00대학교

안건 : 8기 전여대협 의장 선출

8기 전여대협 총선 확정

기타 여학생운동 토론 및 결의

방안운동의 과정에서 ~~이것이~~ 여학생운동?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8기 전여대협 1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 (구성)

-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 중 3인으로 한다.
-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 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조 (업무와 권한)

-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 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원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보고한다.

제 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8기 전여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

8기 전여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